

AI 대전환 시대,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

1 장: 강의 요약 | 2 장: 핵심 개념과 시연 정리 | 3 장: 따라 하는 실습과 30 일 계획



실습 페이지 QR

강의에서 보신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실습 페이지

실습 24 가지의 프롬프트를 손가락으로 눌러 복사할 수 있고, 연습용 가상 데이터 8 종이 함께 있습니다. 설정·보안 4 / 기초 프롬프트 4 / 실무 문서·소통 6 / 실무 데이터 4 / 만들기 4 / 검증·습관 2

주소 <https://socialkim.github.io/cowin/>

1. 오늘 강의의 흐름

	파트	다룬 내용	남는 한 문장
1	생성형 AI 4 년,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	챗봇에서 "일하는 AI"로: 파일을 읽고, 계산하고, 도구를 쓰는 단계로. 결과물의 단위가 "답"에서 "완료된 업무"로 바뀌고 있다	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예전의 AI 와 지금은 다르다
2	AI 가 우리의 고객이 되는 시대	데이터센터·ESS·로봇 수요가 자동화 설비 수요로 이어진다. AI 인프라를 만드는 라인을 우리가 자동화한다	AI 를 만드는 회사의 일하는 방식은 어때야 하나
3	격차는 도구가 아니라 "시키는 방식"에서	같은 도구를 준 실험에서 잘 쓴 쪽은 품질 40% 상승, 잘못 쓴 쪽은 정답률이 오히려 하락. 차이는 프롬프트 기술이 아니다	어디까지 말길지 아는 것이 실력이다
4	내 업무에 이렇게 쓴다 (시연)	기획·리서치 요청 되묻기 / 데이터에서 이상 찾기 / 보고 취합 / 영문 메일 / 그림 그리기 / 환각 잡기	오늘 본 것은 전부 여러분 자리에서 됩니다
5	우리 회사와 나의 다음 30 일	한 부서의 한 업무부터. 매주 반복되고, 숫자로 확인되고, 틀려도 되돌릴 수 있는 일을 고른다	회사가 더 가르치지 않아도 혼자 이어가는 법

2.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: 프롬프트는 "업무지시서"입니다

	적는 것	예시
역할	누구로서 일하는지	당신은 2 차전지 공정 자동화 설비 회사의 기술영업 10 년차입니다
맥락	누가 읽고 무엇을 아는지	고객은 배터리 제조사 생산기술 담당 5 명. 공정은 알지만 물류 로봇은 처음
형식	결과물의 모양	비교표 하나 + 판단 기준 세 줄. A4 한 장 이내
제약	지켜야 할 선	확인되지 않은 수치·사양은 [확인 필요]로 표시해 주세요
검증	되물게 하는 장치	시작 전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물어봐 주세요

▶ 하나만 외우신다면 마지막 두 줄입니다. 이 두 줄이 "그럴듯한 거짓말"을 가장 많이 막아 줍니다.

핵심 개념 정리

3. AI 사용에도 단계가 있습니다. 물어보기 → 시키기 → 말기기

단계	무엇을 하나	결과물	대부분은 여기
① 물어보기	검색창 대체. 궁금한 것을 묻는다	답변	대부분이 아는 단계
② 시키기	업무를 위임한다. 역할·맥락·형식·제약·검증을 준다	완료된 업무 초안	격차는 대부분 여기서 난다
③ 말기기	반복 업무를 도구로 고정한다(프로젝트·나만의 GPT)	매주 같은 품질의 산출물	오늘 강의의 목표 지점

4. 어디까지 믿고 맡길까. "믿는다/안 믿는다"가 아니라 "무엇을 맡기나"

단계	일의 종류	누가 하나	우리 업무 예시
1 초안	초안 작성	AI 에게 맡긴다	영문 메일 초안, 보고서 초안, 슬라이드 구성안
2 요약	요약·정리·번역	말기되 원문 대조 1 회	회의록, 영문 기술문서 요약, 현장 보고 취합
3 판단	판단·추천	같이 한다 (AI 는 후보, 사람이 선택)	이상 원인 후보, 공급사 비교, 대안 검토
4 실행	실행과 책임	사람이 한다	고객 발송, 견적 확정, 사양 승인, 품질 판정

나누는 기준은 성능이 아니라 "틀렸을 때의 비용"입니다.

5. 강의에서 본 시연: 무엇을 보여드렸나

	시연	핵심 포인트	실습 페이지
1	기획·리서치 요청 → 확인 질문 5 개 (ABA)	"검토해서 기획안으로" 같은 요청을 혼자 안고 가지 않는다. 무엇을 묻는 일인지 정해지면 기획은 절반이 끝난다	실습 05
2	데이터에서 이상 찾기	급락은 누구나 본다. 놓치는 건 9 주에 걸쳐 조금씩 떨어지는 선. "파이썬으로 직접 계산해줘"를 꼭 붙인다	실습 16
3	파일 두 개 겹쳐 읽기	가동 데이터와 알람 로그를 날짜로 겹치면 혼자서는 안 보이던 연결이 나온다. 단, AI 는 "겹친다"까지만	실습 17
4	보고 5 건을 한 장으로	취합이 아니라 "서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"를 찾는 것이 본론	실습 13
5	해외 고객 영문 메일	번역이 아니라 태도까지 설계한다. 과한 확인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	실습 09
6	그림 그리기 · 환각 잡기	현장 안전 포스터를 직접 만든다 / AI 는 자신 있게 틀린다	실습 19·23

6. 어떤 AI 를 쓰나: 성능 순위가 아니라 "내 재료가 어디 있나"로

이럴 때	쓰는 것	이유
회사 자료가 재료일 때	가상 숫자로 바꿔서, 또는 회사가 허용한 범위에서	보안이 첫 번째 기준이고 나머지는 그다음입니다
긴 문서·여러 파일을 함께	파일을 여러 개 올릴 수 있는 도구	겹쳐 읽히는 것이 이 강의 실습의 핵심
숫자·차트가 중요할 때	분석·코드 실행 기능	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계산기가 아닙니다
그림·도식이 필요할 때	이미지 생성 기능	말로 고쳐 가며 완성합니다
웹 자료 조사	어느 쪽이든	기능 차이보다 "출처 링크를 열어 확인하는가"가 중요

결론: 둘을 쓰십시오. 하나로 만들고, 다른 하나로 검증합니다. 세 개 이상은 관리가 안 됩니다.

오늘부터 따라 하기

아래 프롬프트는 그대로 복사해 쓰셔도 됩니다. 30 분만 쓸 수 있다면 이 순서로 하십시오.

7. 먼저 3 분: 맞춤 설정 넣기 (한 번 해두면 앞으로 모든 답이 달라집니다)

챗 GPT → 오른쪽 위 프로필 → 설정 → 개인 맞춤 설정 → "어떻게 답변할까요?" 칸

복사해 넣을 문장 (맑은 고딕 기준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)

- 결론부터 말하고, 근거는 그다음에 써주세요. 표로 정리할 수 있으면 표로, 짧게.
- 제가 올린 파일에 없는 숫자나 규격은 끌어오지 마세요. 필요하면 [확인 필요]로 표시해주세요.
- 원인을 단정하지 마세요. 근거가 약하면 "가설" 또는 "시점이 겹침"이라고 써주세요.
- 판단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결정을 대신하지 말고 선택지를 주세요. 애매한 요청이 오면 먼저 물어봐 주세요.

8. 바로 써보는 프롬프트 4 개

이럴 때	그대로 복사해 쓰는 프롬프트
기획·리서치 요청을 받았을 때 (ABA)	아래는 내가 받은 기획(또는 조사) 요청이야. 바로 쓰지 말고, 제대로 하려면 내가 요청자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다섯 개만 뽑아줘. 각 질문마다 왜 필요한지, 답이 달라지면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줄씩. [요청 내용 붙여넣기] 이어서: 확인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목차를 잡아줘. 장마다 "이 장에서 답하는 질문" 한 문장과, 근거를 사내에서 구할 것 / 외부에서 찾을 것으로 나눠서.
양식이 다 다른 보고를 한 장으로	현장 담당자들의 주간 보고를 팀장이 상위 보고할 한 장으로 합쳐줘. ① 이번 주 주요 진행 세 줄 ② 다음 주 핵심 일정(날짜 있는 것만) ③ 리스크와 지원 요청. 각 항목 끝에 누구 보고에서 나온 내용인지 이름을 괄호로. 이어서: 서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찾아줘.
데이터에서 이상한 것 찾기 (CSV로 올리고)	이 데이터의 12 주 흐름을 분석해줘. 파이썬으로 직접 계산해줘. 두 종류로 나눠서: (가) 갑자기 떨어진 급락 (나) 여러 주에 걸쳐 완만하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. 각각 어디서, 언제부터, 평소 대비 얼마나인지 표로. 원인은 추정하지 마.
받은 답을 검증할 때	방금 네 답에서 근거가 약하거나 확신이 낮은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표시해줘. (문서 검증) 이 문서의 숫자와 사실 주장을 전부 뽑아서 ① 확인 가능 ② 데이터와 다름 ③ 외부 출처 필요 ④ 확인 불가 네 가지로 분류해줘.

9. 회사 자료를 다룰 때: 3 원칙과 설정 점검

	원칙	실무에서는
1	가상으로 바꿔서 물어본다	고객사명을 "A 사", 단가를 "100"으로 바꿔도 구조가 같으면 답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
2	입력 금지 5 종	고객사명 / 단가·견적 금액 / 설비 도면과 제어 로직 / 미공개 수주 정보 / 인사정보
3	AI를 썼다고 밝힌다	보고서에 AI 초안을 썼다면 "초안 AI, 검증 본인"을 남기세요

설정 점검: ① "모든 사용자를 위한 모델 개선" 끄기 ② 민감한 내용은 임시 채팅에서 ③ 메모리에 회사 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·삭제 ④ 화면 공유 전 사이드바 대화 제목 확인

10. 내일부터 30 일: 회사가 더 가르치지 않아도 혼자 굴러가려면

주차	할 것	남는 것
1 주	맞춤 설정 넣기 · 보안 설정 확인 · 반복 업무 하나를 ABA로 시켜보기	내 계정이 내 업무를 아는 상태
2 주	내 업무 파일 하나를 가상 숫자로 바꿔 올려 "이상한 것 찾기"	데이터를 말로 다루는 감각
3 주	실제 보고 하나를 3 버전(임원·팀·현장)으로 만들고 검증 한 줄로 확인	남에게 보낼 결과물 한 건
4 주	반복하는 지시를 프로젝트나 나만의 GPT에 고정하고, 팀원 한 명에게 알려주기	재사용 프롬프트와 내 도구

막힐 때 AI에게 물어볼 문장: "나는 2 차전지 공정 자동화 설비 회사에서 [내 직무]를 하고 있어. 내 업무 중 AI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을 ‘오늘 바로’와 ‘준비가 필요한 것’으로 나눠 각각 세 개씩 제안해줘. 각 항목에 사람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점도 한 줄씩."

질문은 "AI가 내 일을 가져갈까"가 아니라 "내 일 중 무엇을 먼저 넘길까"입니다.

김덕진 · IT 커뮤니케이션연구소(ITCL) 소장 ·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과 교수